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표현에 대한 관계*

추 미 레[†]

김 정 희

전북대학교

대학생 425명을 대상으로 Satir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은 회유형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산만형, 초이성형, 비난형 순이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 비난형점수가 특성분노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점수는 일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초이성형점수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차적 분노사고에서, 비난형점수가 타인비난/보복 사고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무력감 사고에서는 회유형점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사고에서는 회유형점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분노 표현방식에서 비난형점수가 분노표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비난형점수와 산만형점수는 분노표출과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초이성형점수와 회유형점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분노억제는 회유형점수와 비난형점수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분노통제는 회유형점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회유형점수와 초이성형점수는 분노통제와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고, 비난형점수는 부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이 다르고, 분노에 대한 개입을 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어 :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

* 본 연구는 2006년 전북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추미례,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에 재학 중,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Tel : 063-270-2925, E-mail : camue93@hanmail.net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러한 대인관계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고 기능적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 중의 하나가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은 생명체들 사이에 감정, 태도, 생각, 신념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다(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1995). Weaver(1949)는 의사소통을 한 사람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이라 했고, Satir(1983)는 의사소통을 “상호작용(interaction)”이나 “거래작용(transac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의미를 교환할 때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온갖 상징과 행동적 암시를 내포하는 것으로 보았다. 학자들마다 의사소통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종합해 보면 의사소통은 감정, 생각, 느낌,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행동으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 과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반영적 자아를 인식하게 되어 자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여 적응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Arcus, Schbanevelde, & Moss, 1993/1998). 또한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인간관계를 시작할 수도 있고 끝낼 수도 있다. 또한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대인관계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기초가 되어 형성되고 발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재창 외, 1995).

의사소통을 다룬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의사소통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rdon(1975)은 자신의 느낌과 입장을 전달하여 상대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나 전달법(I-message)과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 의사소통하는 너 전달법(You-message)으로 구분하였고, Barns와 Olson(1985)은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순환모형에 기초하여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기능적 수준이 되도록 도와주는 개방형 의사소통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폐쇄형 의사소통으로 분류하였다. 송성자(1985)는 한국의 가족 구조, 가치관, 가족적 성격을 고려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권위지향형, 불성실지향형, 희생지향형, 지배지향형, 소심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의사소통 이론에 관한 연구는 가족치료분야에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Palo Alto에 있는 Mental Research Institute(MRI)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대표적 인물로는 Jackson, Haley, Satir, Watzlawick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Satir(1972/2004; Banmen, Gaber, & Gomori 1991/2000)는 의사소통 방식을 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아 존중감을 과장되게 보여주기 위한 대처 방법으로 자신, 타인, 상황을 고려하는 수준에 따라 4개의 하위 유형 즉,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구분된다.

Satir(1972/2004)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회유형(placating stance)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은 존중하지만 자신을 가치없게 여기고, 타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메시지를 보낸다. 자신의 힘을 타인에게 넘겨주며 타인

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고 들어준다. 회유형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무조건 동의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타인을 즐겁게 해 주려 하고 화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비난형(blaming stance)은 회유형과 정반대 유형이다.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유형으로, 약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인을 괴롭히거나 비난한다. 비난형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명령적이고 지시적이다. 이들은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참을성이 없으며 자신이 제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난형들은 자신을 힘 있고 강한 사람으로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지만 내면에는 낫은 자아 존중감과 실패감이 자리하고 있다. 초이성형(superreasonable stance)은 지나치게 이성적이며 객관성과 논리성의 소유자로 자신과 타인은 과소 평가하고 상황만을 중시한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거부하며 어떤 감정도 내보이지 않고 매우 정확하고 냉정하며 차분하고 침착하다. 초이성형은 권위적이며 논리적이고 항상 옳아야 하기 때문에 경직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갑고 건조하며 지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인관계에서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산만형(irrelevant stance)은 초이성형의 반대형으로 자기와 타인, 상황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말과 행동이 타인, 상황과 잘 맞지 않고 산만하다. 다른 사람의 질문을 무시하고 질문의 핵심에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 난처할 때는 농담하고 딴전을 피우며 횡설수설하고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의사소통 유형은 서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

만, 갈등이나 긴장 속에서 상호작용 할 때는 한 가지 유형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송성자(1985)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의사소통에도 성격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주된 의사소통 성격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킨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의사소통 관련 연구들(예: 김성윤, 2001; 김옥숙, 2001; 양윤일, 2005; 이인선, 2004)은 의사소통을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나누고, 자녀의 의사소통 보다는 지각된 부모와의 의사소통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연구들이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의사소통을 단순히 기능적인 것과 역기능적인 것으로 구분함으로써 역기능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개인들의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징들을 간과했다. 또한 의사소통 연구의 대상이 아동이나 청소년이고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간관계 문제로 전체 스트레스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장형석, 2000). Erikson에 의하면 초기 성인기의 주요 인생 과업은 자신의 정체를 다른 사람과 연합하기 위한 친밀감 획득에 있고, 진정한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고립감과 자기 몰입에 빠져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이상로, 이관용, 1980). 이러한 친밀감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기초가 되어 형성되고 발전 되는 것이라 할 때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연구는 필요하다.

모든 의사소통 과정에는 정서적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여러 정서 중에서도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경험되는 정서중의 하나는 분노

이다. Alschuler와 Alschuler(1984)는 분노를 상처 받은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인 어떤 내적 상태로 보았고, Novaco(1994)는 분노를 혐오적 사건을 초래한 사람이나 사물을 향한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경험으로 보았다. Spielberger, Johnson 등(1985)은 분노를 미미한 짜증 혹은 곤혹감으로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 여러 가지 강도를 지니는 정서 상태로 정의하였다.

Spielberger, Jacobs, Russell과 Crane(1983)은 분노를 상태분노(state-anger)와 특성분노(trait-anger)로 나누었다. 상태분노는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정서 상태로 시간에 따라 강도가 변하는 것이며, 특성분노는 시간에 관계없이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 하는 개인의 분노 경향성이다.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광범위한 상황을 빈번하게 분노 유발 상황으로 지각하여 높은 상태분노로 반응하기 쉽다. 즉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들은 더 쉽고 강하게 상태분노가 상승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 때문에 특성분노가 높은 개인들은 분노에 잘 대처하지 못하여 적응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게 된다.

분노 경험은 정서적, 생리적, 인지적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은 거의 동시에 경험된다(Deffenbacher & McKay, 2000). 이 중에서도 인간의 의식적인 인지 과정은 분노 경험에서 아주 중요하다. Schacter와 Singer(1962)는 개인이 생리적으로 각성되었을 때, 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에 의해서 정서가 결정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Novaco(1994)는 정서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건에 대한 각 개인의 판단, 즉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였고, Beck(2000)도 분노가 사건 자체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

건에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해석이나 의미 부여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하였다. Weiner(1985)는 상대방의 외현적 동기나 의도가 내적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지각될 때 분노가 일어나기 쉽다고 주장함으로써 분노에 대한 귀인의 영향을 밝혔다.

최근의 정서 연구들은 인지와 정서를 따로 분리하던 연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정서를 이해하는 중심 요소로 인지 과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1). 인지 평가와 특성분노 연구(김인석, 윤지혜, 현명호, 2004; Hazebroek, Howells, & Day, 2001)에서, 특성분노가 높은 개인들은 특성분노가 낮은 개인들보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더 화를 내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즉시 부정적으로 정의하여 타인을 적대자로 비난했다. 이러한 평가의 편견은 자극 유발 사건이 명확했을 때보다 모호했을 때 더욱 두드러졌다. 이것은 특성분노가 높은 개인들이 사회적 사건의 사정과 평가에서 편견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 연구(고경희, 2001; 김인희, 2000)에서 비합리적 신념이 높을수록 특성분노가 높았는데, 특성분노를 잘 예측해 주는 비합리적 신념으로는 과잉 불안, 염려, 인정 욕구, 무력감, 정서적 무책임감(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 및 개인적 완벽성 등이 있었다. 서수균(2004)은 Beck(2000), Deffenbacher와 McKay(2000), Lazarus(1991)의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분노 상황에서 일어나는 자동적 사고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라는 점에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이 관여하기 쉬운 요인으로 비합리적 신념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일차적 분노사고가 높을 수록 특성분노 경향이 높았다(서수균, 2004).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에 모두 관여하는 인지적 요인이다.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보다 시간적으로 행동하는 시점에 가까이 있고 대처 양상을 반영하기 때문에 행동을 예언하는 정도가 높다. 역기능적 이차 분노사고인 타인비난/보복 사고와 무력감 사고는 분노표출과 상관이 높았고,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사고는 분노통제와 상관이 높았다(서수균, 2004).

사람들은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유주현, 2001). 의사소통 과정에서 정서를 느끼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인이 관계를 맺는 주요한 특징이고 이것은 개인을 이해하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일상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분노이고, 분노에 대한 반응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신체적 행복(well-being), 심리적 행복, 사회적 행복을 위해 타인을 희생하지 않고 다룰 수 있는가에 따라 좋거나 나쁠 수 있고 기능적이거나 역기능적일 수 있다(Alschuler & Alschuler, 1984).

특히 Satir는 경험적 가족치료자들 중 감정적 측면을 중요시하였다(송성자, 정문자, 1994). Satir는 인간의 감정을 내적 과정의 온도계로 비유하여, 감정의 온도에 따라 우리가 존재하는 법과 행동하는 법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Satir, Banmen, Gaber, & Gomori, 1991/2000). Satir 등(1991/2000)은 특히 분노를 가장 흔하게 경험되는 정서지만 또한 가장 미숙하게 관리되는 감정 중의 하나로 보았다. 그들은 감정 밑에는 지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

부 사건에 대한 의미 부여와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 반응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소통 방식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한 대처 방법이다. 의사소통 방식을 대처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회유형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고, 비난형인 사람들은 분노를 무차별적으로 표현한다(Satir et al., 1991/2000). 이와 같이 똑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일지라도 자신과 타인, 상황을 예 대한 지각, 기대, 해석에 따라 분노 경험은 다를 수 있다.

Satir 등(1991/2001)은 의사소통 방식을 자신, 타인, 상황을 고려하는 수준에 따라 4개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으로 세분화하였고,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분노 감정, 분노 지각, 분노 표현을 다르게 경험한다고 보았다. 인지적 관점에서 분노는 사건 그 자체에 의해서 유발되거나 보다는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나 해석, 신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관적인 경험이다.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더라도 분노 경험의 유무나, 표현방식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직까지 의사소통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노와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경험되는 분노를 특성분노, 분노사고 그리고 분노 표현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은 분노 유발 상황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 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면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그리고 분노 표현방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분노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1.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일차적 분노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2.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이차적 분노사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3.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분노 표현방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법

참가자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3개 대학교 대학생 51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한 응답(78명)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하위 요인별 최고 점수가 같은 경우(9명)를 제외한 425명(남학생 119명, 여학생 306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1학년 60명, 2학년 165명, 3학년 81명, 4학년 119명이다. 평균 연령은 21.8세(남학생 22.7세, 여학생 21.7세)이고 연령의 범위는 18-28세이다.

측정 도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척도(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 Scale)

이상순(1998)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와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2004)의 의사소통 유형 검사지를 바탕으로 문항을 재구성한 것으로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2006년 3월-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전북 지역의 심리학, 법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 208명(남학생 74명, 여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질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이 상순(1988)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의 문항 수는 54문항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25문항으로 재구성(회유형: 7문항, 비난형: 7문항, 초이성형: 5문항, 산만형: 6문항)되었고,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이상순(1988)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가 회유형 .77, 비난형 .74, 초이성형 .56, 산만형 .72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회유형 .78, 비난형 .74, 초이성형 .67, 산만형 .72이다.

상태-특성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STAXI)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제작한 상태-분노 표현 척도를 전경구(1991)가 문화적, 언어적 맥락을 고려하여 번안하고 수정한 한국판 STAX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전반적 분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태분노를 제외하고 특성분노(10문항)만을 사용하였고, 분노 표현척도는 분노표출(8문항), 분노억제(8문항), 분노통제(8문항)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 전혀 아니다, 4: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특성분노 .84, 분노표출 .74, 분노억제 .75, 그리고 분노통제 .88이다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Prim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2004)의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본 연구자가 2005년 11월 전북지역의 남녀 대학생 217명(남학생 92명, 여학생 125명)을 대상

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통하여 문항을 재구성하였다.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첫 번째 요인,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두 번째 요인, 친밀한 관계상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 총 20문항에서 14문항으로 조정되었고,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서수균의 척도가 각각 .86, .80 이었는데, 예비 연구의 결과는 .86, .74였다. 두 번째 요인에서의 내적 합치도가 .80에서 .74가 되었지만 제거된 문항수(6)를 감안할 때 신뢰도는 믿을 만하다. 이 척도는 분노 유발 상황에서 경험하는 생각이나 느낌이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1: 전혀 일치하지 않음, 5: 거의 정확히 일치함)로 평정하였고, 분노 유발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Secondary Anger Thought Scale)

서수균(2004)의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는 최근에 개발되었고, 척도의 하위요인들간의 문항수의 불균형이 크다고 판단하여, 2005년 11월 전북지역의 남녀 대학생 217명(남학생 92명, 여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총 34문항이 20문항으로 조정되었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서수균의 척도가 각각 .96, .78, .75였는데, 예비 연구의 결과는 .91, .77, .75가 되었지만 제거된 문항수(14)를 감안할 때 신뢰도는 믿을 만하다. 이 척도는 타인비난/보복(11문항), 무력감(4문항), 분노통제/건설적 대처(5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1: 전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5: 항상 이런 생각을 한다)로 평

정하였다. 타인비난/보복 요인은 타인을 경멸하고 모욕하거나 정신적 혹은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내용이 주가 되고, 무력감 요인은 분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무력해하는 내용이 주가 된다.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요인은 분노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분노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거나 문제 해결적인 노력을 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타인비난/보복, 무력감은 역기능적 분노사고이고 분노통제/건설적 대처는 기능적 분노사고이다.

절차

전북 지역의 4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법학, 가족학, 간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근 6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갈등을 겪었던 상황이나 사건을 적게 하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의사소통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의사소통 유형 질문지를 평정하게 하였다. 다음으로 특성분노 질문지, 일차적 분노사고 질문지, 이차적 분노사고 질문지, 분노표현 질문지를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 정도이다.

결과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Stepwi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에서 예측변인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유형이고 준거변인은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

현방식이다. 자료 분석은 SPSS 12.0 windows를 사용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분포

대학생 남녀 모두 회유형이 가장 높은 비율(41.2%, 47.1%)을 보였고, 그 다음이 남학생은 초이성형(26.9%)이고 여학생은 산만형(25.5%)이었다.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비난형이 가장 낮은 비율(6.7%, 7.5%)을 보였다(표 1). 그러나 이러한 분포간에 남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분포 단위: 명(%)

유 형 ^a	남	여	전 체
	빈도(비율)	빈도(비율)	빈도(비율)
회 유 형	49(41.2)	144(47.1)	193(45.4)
비 난 형	8(6.7)	23(7.5)	31(7.3)
초이성형	32(26.9)	61(19.9)	93(21.6)
산 만 형	30(25.2)	78(25.5)	108(25.8)
전 체	119(28)	306(72)	425(100)

주. ^a역기능적 의사소통의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을 지배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 표현방식의 상관관계

각 요인별 문항의 합산 점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요인별 상관 행렬과 평균 및 표준 편차, 범위가 표 2에 제시 되어 있다.

특성분노의 설명변인

특성 분노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단

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3에 제시 되어 있다. 특성분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점수($\beta=.458$, $p<.001$), 산만형점수($\beta=.210$, $p<.001$) 순이었다. 비난형점수와 산만형점수가 특성분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30.5%의 설명력을 가지며, 비난형점수가 26.7%, 산만형점수가 추가 되었을 때는 4.1%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일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설명변인

일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4에 제시 되어 있다.

첫 번째 요인인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점수($\beta=.226$, $p<.001$), 회유형점수($\beta=.176$, $p<.001$), 산만형점수($\beta=.110$, $p<.05$) 순이었다. 세 유형의 점수들은 예민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8.4%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비난형점수가 4.2%, 회유형점수가 추가 되었을 때 3.1%가 증가되어 7.3%, 산만형점수가 추가 되었을 때는 1.1%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두 번째 요인인 친밀한 관계상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점수($\beta=.250$, $p<.001$), 산만형점수($\beta=.181$, $p<.001$), 비난형점수($\beta=.098$, $p<.05$) 순이었다. 세 유형의 점수들은 실망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0.0%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회유형점수가 4.8%, 그리고 산만형점수가 추가 되었을 때 4.3%가 증가되어 9.2%, 비난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0.8%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표 2. 역기능적 의사소통,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 표현방식의 상관 행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회유형													
2. 비난형		-.297**											
3. 초이성형	.021		.273**										
4. 산만형	-.002	.280**		-.207**									
5. 특성분노	-.082	.517**	.012	.338**									
6. 예민성	.109*	.204**	.020	.173**	.443**								
7. 실망감	.220**	.075	-.080	.208**	.357**	.710**							
8. 타인비난/ 보복	.052	.394**	.109*	.212**	.530**	.405**	.314**						
9. 무력감	.359**	.128**	.011	.274**	.330**	.366**	.381**	.423**					
10. 분노통제/ 건설대처	.300**	.053	.043	.083	.180**	.339**	.374**	.287**	.502**				
11. 분노표출	-.255**	.445**	-.061	.280**	.602**	.233**	.170**	.492**	.280**	.094*			
12. 분노억제	.420**	.178**	.074	.126**	.368**	.434*	.475**	.436**	.508**	.470**	.276*		
13. 분노통제	.469**	-.209**	.235**	-.138**	-.265**	-.048	-.032	-.083	.017	.196**	-.433**	.173**	
평균	21.92	17.43	14.29	17.44	21.19	25.63	20.21	25.87	15.54	10.10	15.48	19.87	18.75
표준편차	4.75	4.21	3.05	3.77	5.04	5.61	4.31	8.66	8.68	3.73	4.12	4.16	4.63
범위	26	26	19	23	28	30	22	44	16	19	24	24	24

주. “예민성”은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을 의미하고, “실망감”은 친밀한 관계상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을 의미한다.

* $p < .05$, ** $p < .01$

표 3. 특성분노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다중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	R^2	부가적 설명량	F^b
특성분노	비난형점수	.458***	.517	.267		159.52***
	산만형점수	.210***	.555	.305	.041	97.06***

*** $p < .001$

주. ^b회귀 모형에 대한 F 값이다.

이차적 분노사고의의 설명변인

이차적 분노 사고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

통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일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다중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	R^2	부가적설명량	F
예민성	비난형점수	.226***	.204	.042		19.04***
	회유형점수	.176***	.271	.073	.031	17.22***
	산만형점수	.110*	.290	.084	.011	13.33***
실망감	회유형점수	.250***	.220	.048		22.25***
	산만형점수	.181***	.303	.092	.043	22.06***
	비난형점수	.098*	.316	.100	.008	16.10***

* $p<.05$, *** $p<.001$

표 5.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다중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	R^2	부가적설명량	F
타인비난/보복	비난형점수	.420***	.394	.155		80.41***
	회유형점수	.177***	.432	.187	.031	50.06***
	산만형점수	.094*	.441	.195	.008	35.11***
무력감	회유형점수	.416***	.359	.129		64.86***
	산만형점수	.222***	.453	.205	.076	56.18***
	비난형점수	.190***	.485	.235	.030	44.55***
분노통제/ 건설대처	회유형점수	.346***	.300	.090		43.27***
	비난형점수	.156**	.335	.112	.022	27.55***

* $p<.05$, ** $p<.01$, *** $p<.001$

이차적 분노사고의 첫 번째 요인인 타인비난/보복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점수($\beta=.420$, $p<.001$), 회유형점수($\beta=.177$, $p<.001$), 산만형점수($\beta=.094$, $p<.05$) 순이었다. 비난형, 회유형, 산만형점수가 타인비난/보복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9.5%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비난형점수가 15.5%, 회유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 3.1%가 증가하여 18.7%, 산만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0.8%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두 번째 요인인 무력감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점수($\beta=.416$, $p<.001$), 산만형점수($\beta=.222$, $p<.001$), 비난형점수($\beta=.190$, $p<.001$) 순이었다. 회유형, 산만형, 비난형점수가 무력감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23.5%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회유형점수가 12.9%, 산만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 7.6%가 증가되고, 비난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3.0%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세 번째 요인인 분노통제/건설대처 사고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점수($\beta=.346$ $p<.001$), 비난형점수($\beta=.156$ $p<.01$) 순이었다. 회유형과 비난형점수가 분노통제/건설대처 사고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11.2%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회유형점수가 9.0%, 비난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2.2%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분노 표현방식의 설명변인

분노 표현방식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단계적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분노 표현방식의 첫 번째 요인인 분노표출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점수($\beta=.406$ $p<.001$), 초이성형점수($\beta=-.141$ $p<.01$), 산만형점수($\beta=.137$ $p<.01$), 회유형점수($\beta=-.131$ $p<.01$) 순이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점수 모두가 분노표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26.1 %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비난형점수가 19.8%, 초이성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 3.6%가 증가되고, 산만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 1.2%가 증가되며, 회유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1.5%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두 번째 요인인 분노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점수($\beta=.518$ $p<.001$), 비난형점수($\beta=.332$ $p<.001$) 순이었다. 회유형과 비난형점수가 분노억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27.6%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회유형점수가 17.6%, 비난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10.0%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세 번째 요인인 분노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점수($\beta=.417$ $p<.001$), 초이성형점수($\beta=.269$ $p<.001$), 비난형점수($\beta=-.158$ $p<.001$) 순이었다. 회유형, 초이성형, 비난형점수가 분노통제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29.2%의 설명력을 가지며, 그 중에서 회유형점수가 22.0%, 초이성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 5.1%가 증가되고, 비난형점수가 추가되었을 때는 2.1%의 부가적 설명력이 더해졌다.

표 6. 분노 표현방식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다중 회귀분석

준거변인	예측변인	β	R	R^2	부가적설명량	F
분노표출	비난형점수	.406***	.445	.198		108.01***
	초이성형점수	-.141**	.484	.234	.036	66.64***
	산만형점수	.137**	.496	.246	.012	47.31***
	회유형점수	-.131**	.511	.261	.015	38.35***
분노억제	회유형점수	.518***	.420	.176		93.46***
	비난형점수	.332***	.526	.276	.100	83.30***
분노통제	회유형점수	.417***	.469	.220		123.54***
	초이성형점수	.269***	.520	.271	.051	81.00***
	비난형점수	-.158***	.540	.292	.021	59.72***

** $p<.01$, *** $p<.001$

논 의

본 연구는 Satir의 의사소통 모델 중심으로 대학생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특성분노, 분노사고 및 분노표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Satir 의사소통 유형 질문지와 분노사고 질문지를 재구성 하여 42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들의 의사소통 유형은 회유형(45.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산만형(25.8%), 초이성형(21.6%), 비난형(7.3%)이었다. Satir(1972/2004)는 미국인의 경우 회유형(50%)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난형(30%), 초이성형(15%), 일치형(4.5%), 산만형(0.5%)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상순(1998)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일치형(24.5%), 산만형(22.6%), 회유형(18.8%), 초이성형(18.8%), 비난형(15.4%)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이상순의 연구 참여자들보다 회유형이 훨씬 더 많았으나 비난형이 가장 적은 것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이러한 결과는 Satir가 회유형 다음으로 비난형이 많을 것이라고 기대한 결과는 달랐다. 대학생들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회유형이 가장 많고 비난형이 가장 적은 이유는, 우리 문화에서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지나친 자기 주장적 행동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Satir는 산만형이 전체 의사소통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0.5%)을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회유형 다음으로 높은 비율(25.8%)을 보였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우리의 문화가 서구에 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상황을 고려하여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

는 것이 어렵고 난처할 때는 농담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Satir의 산만형 개념과 본 연구의 산만형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성분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점수($\beta=.458$), 산만형점수($\beta=.210$) 순이었다. 비난형점수는 특성분노의 2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난형인 사람들은 타인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낮은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비난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러한 특징들이 특성분노와 연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만형점수는 특성분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4.1%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산만형들이 겉으로는 말과 행동이 부적절하여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보이진 않지만 내면에는 특성적 분노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일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비난형, 회유형, 산만형점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의 8.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회유형과 산만형, 비난형점수는 친밀한 관계상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의 10.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은 일차적 분노사고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지만 초이성형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부여라는 점에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이 관여하기 쉬운 요인이다(서수균, 2004). 초이성형이 일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들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이들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분노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부

여 과정에서 인지적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회유형, 비난형, 산만형 점수가 타인비난/보복 사고의 19.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비난형 점수가 타인비난/보복 사고의 15.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비난형이 특성분노가 높은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결과는 김인석 등(2004)과 Hazebroek 등(2001)이 특성 분노가 높은 개인들은 특성분노가 낮은 개인들보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더 많이 화를 내고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을 즉시 부정적으로 정의하여 타인을 비난한다고 한 것과 방향을 같이한다.

무력감 사고에서는 회유형, 산만형, 비난형 점수가 23.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에서 회유형 점수가 12.9%를 설명하고, 산만형 점수가 추가적으로 7.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유형은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에게로 잘못을 귀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무력감 사고가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산만형들은 한 주제에 초점을 잘 맞추지 못하고 타인, 상황과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보이는데,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는 다르게 내면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초이성형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유형들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초이성형의 특성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사고에서는 회유형과 비난형 점수가 11.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회유형 점수가 9.0%, 비난형 점수가 추가적으로 2.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능적 이차 분노사고인 분노통제/건설적 대처 사고는 회유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의사소통 유형은 설명력이 미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

분노 표현방식 중 첫 번째 요인인 분노표출을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비난형 점수($\beta = .406$ $p < .001$), 초이성형 점수($\beta = -.141$ $p < .01$), 산만형 점수($\beta = .137$ $p < .01$), 회유형 점수($\beta = -.131$ $p < .01$) 순이었다. 이 중에서 비난형 점수가 분노표출의 19.8%를 설명하였고, 산만형 점수가 추가적으로 1.2%를 설명하였다. 비난형과 산만형이 분노표출 경향이 높은 것은 이들 유형이 특성분노가 높은 것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경희(2001)가 특성분노가 높을수록 분노표출 경향이 높고 분노억제 경향은 낮다고 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Satir 등(1991/2000)이 비난형들은 분노를 무차별적으로 표현한다고 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분노억제에서는 회유형 점수가 17.6%를 설명하였고 비난형 점수가 추가적으로 10.0%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Satir 등(1991/2000)이 회유형은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 것을 뒷받침 해준다고 보겠다. 그러나 비난형들이 분노를 무차별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Satir et al., 1991/2000), 본 연구에서는 분노표출과 분노억제를 동시에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노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회유형 점수($\beta = .417$), 초이성형 점수($\beta = .269$) 순이었다. 이 중에서 회유형 점수가 분노통제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설명력(22.0%)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회유형과 초이성형이 분노통제를 많이 하지만 비난

형들은 오히려 분노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회유형은 분노 경향성은 없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무시와 실망감을 많이 느끼고, 무력감, 분노통제/건설적 대처사고를 많이 한다. 회유형들은 분노를 억제하거나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비난형은 특성분노가 높고, 분노 유발상황에서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예민하여 타인비난/보복 사고를 많이 한다. 비난형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하며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초이성형은 특성분노, 분노사고와 유의한 관계는 없고, 분노를 잘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산만형은 특성분노가 높고 친밀한 관계에서 무시와 실망감, 무력감 사고가 높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분노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표현방식으로 세분화하여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인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 특성분노, 분노사고, 분노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비난형들은 다른 유형들보다 특성분노가 높고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타인비난/보복 사고가 높으며 분노표출 경향이 높다. 즉, 개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패턴이 일률적으로 분노 사고나 분노 표현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과 분노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치료의 초점이나 전략을 세우는 데 유용할 수 있다. 특히 현대인에게 분노나 화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Thich, 2001/2003), 분노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인의 의사소통 방식을 고려한다면 차별화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 질문지가 문항 수에 비해 신뢰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여 25문항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질문지로 재구성 하였다. 그러나 재구성된 의사소통유형의 질문지는 일치형이 제외되었고, 초이성형의 신뢰도가 다른 요인들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에서는 일치형의 유형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고, 초이성형의 신뢰도를 좀 더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각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유형을 지배 유형으로 명명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유형을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한 가지 유형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높은 유형을 조합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개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 대상이 일정지역의 대학생들로 한정되었고 표집 대상의 성비 불균형이 있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연구 결과를 좀 더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질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Likert 방식으로 측정하였는데, 응답 과정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이 작용할 수 있다. 추후에는 사회적 바람직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을 구성하거나 구체적인 상황을 제공하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측정한다면 의사소통 측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경희 (2001). 특성분노, 분노 표현양식과 비합리적 신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윤 (2001). 중학생의 자아개념 유형과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04). 인간관계 및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사티어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옥숙 (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 성숙도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석, 윤지혜, 현명호 (2004). 특성분노와 의도-모호성이 타인비난과 운전분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3), 713-728.
- 김인희 (2000). 대학생의 비합리적 신념과 분노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성자 (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가족치료에 관한 연구: 의사소통 가족치료 이론을 중심으로. *충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성자, 정문자 (1994). 경험적 가족 치료: 사티어 이론과 기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양윤일 (2005).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수준과 분노 표현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주현 (20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로, 이관용 (1980). 성격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양적성출판사.

- 이상순 (1998). 심리경향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 분석: Jung과 Satir의 이론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인선 (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만족도가 청소년의 게임 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정영윤, 구본권, 손진훈, 김정기, 박승호 (1995). 인간이해를 위한 심리학. *서울: 문음사*.
- 이훈구, 이수정, 이은정, 박수애 (2002). 정서심리학. *서울: 법문사*.
- 장형석 (2000).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천과 대처 전략. *연구보*, 32, 101-115.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전겸구 (1991). 분노표현 양식과 신체 병리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발표 초록집*, 9-15, 10월 25-26일. *서울: 성균관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lschuler, C. F., & Alschuler, A. S. (1984). Developing healthy response to anger :The counselor's rol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3, 26-29.
- Arcus, M. E., Schbanevelde, J. D., & Moss, J. J. (1998). 가족생활교육의 실제(이정연, 장진경, 정혜정 역). *춘천: 하우(원전은 1993년에 출판)*.
- Barns, J. L., & Olson, D. H.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o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7-447.
- Beck, A. T. (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Deffenbacher, J. L. (1992). Trait anger: Theory, findings and implications. In C. D.

- Spielberger & J. N. Butcher(Eds.), *Advance in personality assessment*. NJ: Lawrence Erlbaum.
- Deffenbacher, J. L., & McKay, M. (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Gordon, T. (1975).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Hazeboek, J. F., Howells, K., & Day, A. (2001). Cognitive appraisals associated with high trait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0, 31-45.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Novaco, R. W. (1994). Anger as a risk factor for violence among the mentally disordered. In J. Monahan & H. J. Steademan(Eds.), *Violence and mental disord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atir, V. (1983). *Conjoint family therapy*(3nd ed.).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tir, V., Banmen, J., Gaber, J., & Gomori, M. (2000). 사티어 모델: 가족치료의 지평을 넘어서(한국 버지니아 사티어 연구회 역).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원전은 1991년에 출판).
- Satir, V. (2004). 사람 만들기(성문선 역). 서울: 홍익제(원전은 1972년에 출판).
- Schacher, S., & Singer, J. E. (1962). Cognitive, social and physiological determinants of emotions state. *Psychological Review*, 69, 379-399.
- Spielberger, C. D., Jacobs, G. A., Russell, S., & Crane, R. S. (1983). Assesment of anger: The state-trait anger. In J. N. Butcher & C. D. Spielberger(Eds.), *Advance in personality assessment*(pp.161-190). Hillsdale, NJ: Erlbaum.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l, S., Crane, R. S., Jacobs, G. A., & Workm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 R. H. Ries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pp.5-30). New York: Hemisphere.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 and stress*(pp.89-108). New York: Springer Verlag.
- Thich Nhat Hanh (2003). 화최수민 역. 서울: 명진(원전은 2001년에 출판).
- Weaver, W. (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III.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 548-573.

원고 접수일 : 2008. 8. 4

수정원고접수일 : 2008. 9. 4

게재 결정일 : 2008. 11. 10

The Relationships of Trait Anger, Angry Thoughts, and Expression of Anger to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Me Rye Choo

Chung Hee Ki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Satir dysfunctional communication patterns in relation to trait anger, angry thoughts, and expressions of anger by 425 college students. In terms of our results, the sequences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were as follows: placating stance, irrelevant stance, super-reasonable stance, and blaming stance. The blaming stance score explained most of the elements inherent within trait anger. The placating stance, blaming stance, and irrelevant stance scor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factors of primary anger thought. In secondary thoughts of anger, the blaming stance score explained most of the elements within the derogation of others/revenge. The placating stance score explained most of the issues involved in helplessness, and the placating stance score went a long way towards explaining most of the anger-control/constructive coping strategies. The blaming stance score to a great extent explained the issue of anger-out. The blaming stance and the irrelevant stance scor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anger-out, whereas the super-reasonable and the placating stance scor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it. The placating stance and the blaming stance scores, to a significant degree, helped to explain anger-in to a significant degree. The placating stance score explained most of anger-control, while the placating stance and super-reasonable stance scor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it. However, the blaming stance score was negatively related to i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rait anger, angry thoughts, and expressions of anger differ according to the pattern of dysfunctional communication. These result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nsidering anger intervention strategies.

Key words : dysfunctional communication, trait anger, anger thought, anger expression